



수비... 환상적이거나 어이없거나

지난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경기 3회말 무사에서 두산 박건우의 타구를 KIA 중견수 버나디나가 아쉽게 놓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의 1위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수비'다.

KIA는 앞선 18일 충격적인 역전패로 지난주 일정을 마감했다. LG 트윈스와 홈경기를 가졌던 이날 KIA는 서동욱의 만루포와 김민식의 백투백 홈런으로 1회에 만 7점을 뿔아내고도 8-16 대패를 당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는 20-8 대승으로 장식했다. 지난 20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21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KIA는 장단 20안타로 20점을 뿔아내면서 '극과 극'의 패와 승을 기록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비'에서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두 경기였다.

18일 기록된 실책은 두 개. 4회 포수 김민식의 송구 실책, 6회에는 김선빈 포구 실책이 나왔다. 두 실책은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쉬운 수비에서 흐름이 기울었다.

7-3으로 앞선 6회초 1사 1·2루가 출발점이었다. LG 강승호의 타구가 투수 쪽으로 향했고, 박진태에 이어 구원 등판한 손영민이 뛰어올랐지만 공은 글러브를 맞고 뒤로 흘렀다. 김선빈이 급히 공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웃카운트 하나 올리지 못하

KIA, 7점차 앞서다 실책에 역전패 당하고... 난타 당하던 에이스, 슈퍼 캐치에 대응

고 만루가 채워졌다. 병살타로 이닝을 종료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아쉬운 수비로 채워진 만루, 결국 LG 유강남의 동점 만루포가 터졌다.

이어 LG 손주인의 타석에서는 중견수 김호령이 키를 넘기는 타구를 쫓다가 포구에 실책했다. 공은 글러브를 맞고 떨어졌고, 김호령은 펜스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 사이 손주인이 홈까지 파고들면서 그라운드 홈런이 기록됐다.

이후에도 KIA는 3루수 이병호, 좌익수 최형우의 글러브를 살짝 비켜난 공에 승기를 내렸다.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던 경기였다.

역전패 이후 첫 경기였던 21일에는 반대로 수비가 공격만큼 화끈했다.

KIA 헥터와 두산 니퍼트의 '에이스' 대결로 주목을 끌었던 이날 경기는 예상과 달리 난타전이었다. 1회부터 두산 오재원과 KIA 최형우가 홈런을 주고받으면서 심상치 않은 경기를 예고했다. 1회말 0-2에서 버나디나의 적시타와 최형우의 역전 투런으로 3-2를 만든 KIA는 3회 9-3까지 점수를 벌였다.

이날 승리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온 것은 4회초 수비에서였다. 헥터가 선두타자 류지혁에게 안타를 내준 뒤 플라이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채웠지만, 2사 1루에서 연속 3안타를 맞으면서 휘청거렸다.

그리고 9-5까지 쫓긴 2사 1·2루에서 민

병현의 타구가 멀리 뻗어 나갔다. 우중간을 가르는 공에 주자들이 모두 홈을 밟는 것 같았지만, 우익수 이병기가 환상적인 슬라이딩 캐치로 이닝을 종료시켰다.

이어진 5회말 대거 5득점을 한 KIA는 이후에도 버나디나와 김호령의 슈퍼 캐치를 묶어 20-8의 대승을 찍었다.

20일 멀티 2루타와 함께 결정적인 호수비를 선보였던 이병기는 "처음 맞았을 때는 잡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몸을 뻗었다"며 "운이 좋았다"고 웃었다.

극과 극의 두 경기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김호령은 "그라운드 홈런 때" 포구 자체

가 잘못됐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처음에는 일단 전력 질주를 한 뒤 마지막에 과감하게 잡으려고 시도할지 안정적으로 수비할 지 결정한다"며 "반대로 타자 입장에서 잘 때린 공이 잡히면 정말 기분이 나쁘다. 나처럼 안타 하나가 급한 사람에게는 더 그렇다"고 웃었다.

KIA의 1위 수성을 위해 필요한 보이지 않는 전력, 세밀하고 집중력 있는 수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50홈런 최형우 "저는 홈런타자 아닙니다"

김기태 감독 "박태환도 아닌데 다이빙을 해"

덕아웃 T 특독

▲홈런타자 아닙니다 = 프로통산 14번째 250홈런 주인공이 된 최형우의 수줍은 고백. "저는 홈런타자 아닙니다". 최형우는 지난 21일 두산 에이스 니퍼트를 상대로 1회 1사 1루에서 우측 풀 맞는 투런포를 뿔아내면서 SK 최정에 앞서 250홈런을 채웠다. 22일 최형우는 "내가치고도 완벽했다"며 자신의 홈런을 자평했다.

최형우는 "니퍼트 공이 정말 좋았다. 몸쪽 공도 잘 잡았고, 홈런 직전 공을 보면서 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이런 홈런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운이 좋았다"고 웃었다. 최형우는 또 "많은 분이 홈런타자라고 하시는데 사실 홈런타자라고 생각해보면 적 없다. 그냥 힘 좀 있고, 컨택 능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좋은 능력을 갖췄던 선수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애들이 박태환도 아니고 = 김기태 감독을 웃게 한 외야수들의 다이빙 퍼레이드였다. KIA는 지난 21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이병기의 호수비를 시작으로 버나디나, 김호령이 잇달아 환상적인 슬라이딩 캐치를 선보였다. 뜨거운 두산의 방망이를 잠재운 호수비 열전에 KIA는 20-8, 승리를 거뒀다. 22일 취재진과 자리를 한 김 감독은 "애들이 박태환도 아니고 다이빙을 막 하더라"며 웃었다. 특히 김호령에 대해

"수비 정말 잘한다. 버나디나가 웬만하면 안 지는데 (김호령 수비) 전 세계 1등이라고 했다(웃음). 자신이 우익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내려갈 자리입니다 = 타율 1위 김선빈의 겸손한 소감은 "내려갈 자리다"다. 김선빈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를 누르고 타율 1위 자리에 올라 있다. 지난 21일에도 3안타를 쓸어 담으면서 타율을 0.373까지 끌어올렸다. 김선빈은 "특별한 소감은 없다. 오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 어차피 내려갈 자리다"고 언급했다.

▲너무 위에 있어서 = KIA에서는 전체 타율 1위 김선빈에 이어 10위 안에 이병기와 최형우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21일 멀티 2루타를 때린 이병기는 0.341의 타율로 7위를 기록했다. 21일 경기 끝난 뒤 "김선빈에 도전해보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병기는 "너무 위에 있다"며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챔피언스 필드 투어

KIA, 참가자 모집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투어' 제6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챔피언스 필드 투어는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 곳곳을 둘러본 뒤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오는 29일(목) 삼성전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참가자들은 투어 후 3루측 K7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 참가자에게 사인볼 등 다양한 기념품이 주어진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그라운드(블렌·타아웃) 및 라커룸(원정팀) 체험, 선수-팬 미팅, 실내연습장 및 웨이트 트레이닝실 견학, 선수단 훈련 관전, 경기 관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 모집은 23일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sports/baseball/event/45>)를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40명이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6-8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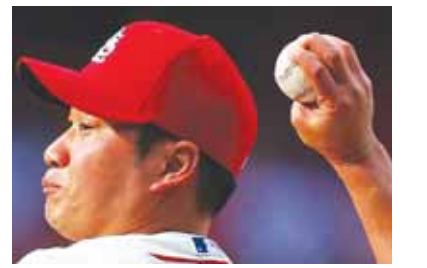
한편 이번 투어는 KIA가 추진하는 '베이스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는 야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비전(Team 2020)' 실현을 위한 것으로 '야구(baseball)'와 '문화(culture)'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 생산의지를 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 11호 홈런



오, 16세이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홈런을 터뜨리고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세이브를 올렸다.

추신수는 시즌 11번째 홈런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그는 22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1홈런) 2볼넷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6경기 연속 안타, 15경기 연속 출루다.

그는 팀이 0-7로 크게 뒤진 3회말 1사 2루에서 토론토 선발 우완 조 비아지니의 3구째 시속 151km(93.7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뿔아냈다.

지난 18일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 이후 나흘 만에 나온 홈런으로, 시즌 11호다. 아울러 6경기 연속 안타이기도 하다. 팀은 5-7로 졌다.

마무리 오승환은 시즌 16번째 세이브를 챙겼다.

오승환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방문 경기에서 1이닝을 2피안타, 1탈삼진, 1실점으로 막았다.

세인트루이스는 5-5로 맞은 10회초 7-5가 되자 10회말에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렸다. 오승환은 필라델피아의 첫 타자 앤드루 크넵과 풀카운트 접전 끝에 우전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다니엘 나바를 2루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카메론 퍼킨스한테 던진 5구째 시속 137km(84.9마일) 슬라이더가 우익수 쪽 안타로 연결되면서 1실점 했다.

오승환은 후속타자 하우이 캔드릭을 2루수 땅볼로 처리했고 마지막 타자를 침착하게 삼진으로 처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전남 '창'이나 광주 '방패'냐... '엘로 더비' 사활



프로축구 광주 FC가 사활을 건 '엘로 더비'를 펼친다.

광주FC가 24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2017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물러설 곳 없는 11위 광주의 절박한 승부다.

A매치 휴식기 이후 대구 FC와의 원정 경기 이후 수원 삼성과 홈경기를 치른 광주는 1무1패에 그치고 있다. 대구전 2-2 무승부에 이어 지난 21일 안방을 찾은 수원에 세 골을 내주면서 0-3 패배를 기록했다. 안방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아쉬움이

홈서 K리그 클래식 16R

6승5무4패로 앞서지만

원정 0-5 패 등 안좋은 기억

크다. 또 중위권 도약의 목표를 위해 부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주말에 만나게 된 상대는 '엘로더비'의 전남이다. 승패를 떠나 양 팀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다. 역대전에서 광주가 6승 5무 4패로 우위에 있지만 자만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선 원정길에서 맞은 0-5 대패의 아픔도 감안해야 한다.

전남의 창을 막기 위해 '수비의 핵' 김영빈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영빈은 수비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 그만큼 수비 중심축으로 많은 역할을

필요하다. 앞선 전남전에서 부상으로 결장했던 김영빈은 탄탄한 수비로 패배를 갚아 주겠다는 각오다.

김영빈은 "부상으로 지난 전남전을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선수들의 투지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며 "이번 경기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 승리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1무 1패)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자일이라는 확실한 골잡이가 버티고 있다. 자일은 지난 원정에서 헤트트릭으로 맹활약하며 광주를 흔들었다. 이외에 허용준, 김영욱, 최재현 등 2선 공격수들의 발도 묶어야 한다.

광주가 김영빈을 중심으로 전남의 공격을 봉쇄하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월 12~13일 한·일 골프 국가대표 친선경기

골프협회, 남녀 4명씩 16명 팀·개인 매치플레이 방식

대한골프협회는 오는 7월 12~13일 일본 도토리엔 다이센 골프클럽에서 일본골프협회와 함께 '제2회 한·일 골프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국 외교부가 후원하는 이 대회에는 국가대표 남녀 선수 각 4명씩 모두 16명이 출전한다.

첫날인 12일 팀 매치플레이(동성 포섬 및 혼성 포섬), 둘째 날인 13일 개인 매치플레이를 통해 승부를 겨룬다. 엔트리는 이날 말 결정된다.

지금까지 한·일 간 골프경기가 여러 형태의 아마추어와 프로 이벤트로 개최됐지만, 양국 외교부와 골프협회가 나서 국가대표 친선 골프대회를 여는 것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회는 대한골프협회 창립 이래 재외 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사에 선임된 재일동포 한상인 최준태 아마추어 회장

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당시 한·일 수교 5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를 푸는 실마리 역할을 하자'는 최 회장의 대회 취지에 허광수 대한골프협회장과 다케다 일본골프협회장이 흔쾌히 동의해 성사됐다.

최 회장은 4년 전 이토추 상사로부터 37만 평(약 122만㎡)의 정규 18홀을 갖춘 다이센 골프클럽을 사들였다. 일본 골프다이제스트가 발표한 순위에서 2400여 개의 일본 골프장 가운데 30위 안에 들어 있는 명문이다.

최 회장은 일본 고베, 오사카 등지에서 부동산업, 운수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하며 부를 일군 한상이다.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 부회장,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및 리딩 CEO 멤버를 지냈고, 현재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